

졸리, 파키스탄 홍수 피해 지역 '깜짝 방문'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가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지난 20일 파키스탄 카라치의 공항에 도착한 졸리는 곧바로 다두 지역으로 이동, 이재민 구호 시설 등을 찾았다.

카라치와 다두가 속한 남부 신드주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심각한 홍수 피해 지역으로 꼽힌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6월 이후 우기 동안 1천559명이 홍수 피해로 숨졌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92명이 신드주에서 사망했다.

국제구호위원회(IRC)는 "졸리는 최근 홍수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했다." 며 "앞으로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졸리의 방문을 통해 세계가 파키스탄에 더 관



▲ 파키스탄 홍수 피해 현장을 찾은 앤젤리나 졸리. 사진=트위터(angelinajolie)

심을 기울이고 행동에 나서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앞서 졸리는 이라크의 모술, 예멘 등 분쟁 현장을 방문,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4월에는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소아과병원에서 우크라이나 청소년 난민을 만났고 5월에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찾았다.

파키스탄은 해마다 6~9월 계절성 몬순 우기를 겪는데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 현재 유엔(UN) 등 국제기구와 각국은 생필품 등을 보내며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RM, 박대성 화백 미국 전시회에서 인증샷

수묵화 거장 박대성 화백의 LA 전시회에 방탄소년단(BTS)의 RM(본명 김남준)이 나타났다.

RM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열리고 있는 박 화백의 수묵화 전시전을 찾아 작품을 관람하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을 올렸다.



▲ 박대성 화백의 LACMA 전시회에서 박 화백의 수묵화를 감상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RM(왼쪽). 방탄소년단 RM(오른쪽). 사진=트위터(BTS_1w)

RM은 올해 2월에도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경주슬거미술관을 찾아 박 화백의 전시회를 관람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올린 바 있다. 이에 경주슬거미술관은 RM이 작품을 감상한 '금강폭포' 앞에 BTS RM 포토존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또 RM 관람 동선을 따라 'BTS RM과 같이 보는 작품' 이란 발자국 스티커를 붙여 관람객 흥미를 끌었다.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는 "BTS의 RM이 박대성 화백 작품에 큰 관심을 보이며 경주슬거미술관도 함께 알려져 감사하게 생각한다" 며 "한국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7월 17일 시작된 박 화백의 LACMA 전시회는 12월 21일까지 이어진다.

RM은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박 화백 개인전을 방문해 작품사진을 BTS 공식 트위터에 올렸다.

RM은 미술관을 다니며 인증 사진을 남기는 미술애호가로 알려졌다. BTS 팬 사이에서는 'RM 미술관 투어'가 생겼을 정도로 미술계에서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꼽힌다.

블랙핑크, UN 총회 세션 참여 "더 나은 내일 만들자"



▲ 블랙핑크는 지난해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홍보대사로 임명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정규 2집 'BORN PINK' 로 글로벌 인기몰이 중인 블랙핑크가 가운데 지난 19일 개최된 'UN SDG Moment' 에서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SDG Moment' 는 UN 총회 High-Level Week의 첫날 개최되는 세션으로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가 원수, 글로벌 CEO 등 각 분야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코너가 마련됐으며 블랙핑크는 그 시작을 알리는 리드 역할을 맡아 의미를 더했다.

멤버 제니는 "UN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위해서는 전 세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로제는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에너지를 비롯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함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수는 "개인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 이라고 강조했다.

리사는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모두의 미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더 많은 배움과 지식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자." 고 당부했다.

블랙핑크는 약 1년 전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홍보대사(SDG Advocate)로 임명되어, 2023년까지 총 17가지 주 목표 중 '기후 변화 대응' 및 '교육' 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샤론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